

원산지표시 위반 최대 3억원 과징금 물린다

형사 처분 별도로... 처벌 강화

2년간 2회 이상 적발때 적용

농관원 전남지원 일제단속

거짓표시 등 313개 업소 적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반사례가 줄어들지 않아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신동하·이하 농관원 전남지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가 적발될 경우 형사 처분 외에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대 3억원) 과징금도 추가로 부과된다고 24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는 2년간 2회 이상의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부담이득 환수 차원에서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대 3억 원)를 형사 처분과 별도로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과징금 부과 제도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 처분이 실제로는 낮은 벌금 부과에 그치고 있어 그 보완책으로 도입됐다.

농관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과징금은 2년간 2회 이상의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



농관원 전남지원 원산지 위반 표시 단속반원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으로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농관원 전남지원 제공)

적용되며, 과징금액도 거짓표시 위반 금액별로 7단계로 차별화해 위반금액이 클수록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는 형태로 운영될 계획"이라며 "이번 과징금 제도 시행으로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방지 분위기 확산을 통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등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농관원 전남지원은 농관원은 원산지표시 대상 업소 9만4000개소 중 지난달 31일까지 1만7200개소를 점검해 이 중 원산지 거짓표시 178개소를 비롯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 31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기간(325건)에 비해 12% 감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다 적발된 업체는 모두 178개소(56.9%)로 지난해(43.1%)보다 13.8%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63건, 쇠고기 46건, 카네이션 27건, 쌀 16건 등이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고 있었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이 가운데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178개소에 대해서 형사 처분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35개소는 총 26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금년 상반기 단속 상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도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예방차원의 지도·홍보와 더불어 수요가 많고 원산지 위반이 잦은 품목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도 농수산물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수산물 부정유통 신고전화 1588-8112번이나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5년 연안수온변화 한눈에

수산과학원 '위성에서 본 우리 바다' 발간

지난 25년간 우리나라 수역의 해수표면온도가 약 0.2~1.3도(°C)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산과학원(강준석 원장)은 미국해양대기청 NOAA 위성 수신 25주년을 기념해 1990년부터 2014년까지의 위성수온영상정보를 담은 '위성에서 본 우리 바다' 책자를 발간하고 학계, 어업별 수협, 정책부서 등 해양·수산·기상 관련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위성에서 본 우리 바다'는 한반도 주변 2000㎞(북위25~45°N, 동경120~142°E)의 광범위한 해역의 표면수온 변화를 1년 365일, 25년간 관측한 위성정보를 아틀라스(Atlas)로 만든 것이다.

이 책자를 통해 위성수신 초기인 1990년 우리나라의 수온은 몇 도였으며, 25년이 지나면서 매일, 매년 어떻게 변하는지, 또 매일의 수온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 수 있다.

내용으로는 제1장 NOAA 위성자료 수신 및 수온정보생산, 제2장 NOAA 영상과 동북아시아해역의 표면수온 장기변동, 제3장 1990~2014년 NOAA 해수면 온도 분포도, 부록 다양한 해양관측 위성의 소개를 담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1987년부터 국내 최초로 NOAA 위성자료를 간이 시스템으로 수신했고, 1989년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NOAA 고해상도 감지기(AVHRR) 관측자료 수신소를 운영해왔다.

그동안 '오늘의 위성수온영상'을 매년 365회(총 1215회)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현장관측자료와 비교·분석한 정보를 담은 '해양속보'를 매년 52회(총 1300회) 발행해 어업인의 어장탐색을 위한 자료로 제공해왔다.

이번 책자발간으로 지난 25년간 위성정보를 통해 우리나라 표면수온은 해역에 따라 약 0.2~1.3°C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결과는 최근 고등어, 오징어, 멸치 등의 주요 난류종의 어획량이 증가되고 있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한 셈이다.

이처럼 '위성에서 본 우리 바다'의 다양한 수온 정보는 연근해 어장형성해역탐색, 양식장 적지파악, 해양기후변화연구, 수산자원의 변동연구, 수산물 유통, 해운, 기상예보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서영삼 수산해양종합정보과장은 "이번에 발간된 '위성에서 본 우리 바다' 영상정보를 통해 우리나라 바다를 연구할 수 있는 빅데이터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국춘란 경매 1년... 거래가 30~40% 올랐다

aT, 작년 6월부터 시행
최고 낙찰가 1억5000만원
춘란 대중화·산업화 기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지난해 6월 춘란에 대한 경매 실시 이후 난(蘭) 거래 가격이 전년 대비 30~40% 올랐다고 밝혔다. 24일 aT에 따르면 춘란시장 활성화와 대중화를 통한 도시농업 창출을 위해 실시했던 aT 화훼공판장의 한국춘란 경매가 개장 1주년을 맞는다. aT는 출하자와 구매자간 신뢰 구축을 위해 춘란단체와 공동으로 감정평가단을 구성, 공정가격 형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출하자는 경매품에 대해 재배이력서를 작성, 품종 및 상품등록 여부를 보증함으로써 판매나 구매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다.

그 결과 최고 낙찰가가 1억5000만원(단원소 2축·사진)에 달하는 등 지난해 한국춘란 경매액은 20억원에 육박했다. 또한 지난해 한

국춘란 입문교육 과정을 신설한 결과 70여명이 수료했는가 하면 11월 개최된 '한국춘란 전국전람회'에는 5000여명이 방문하는 등 한국춘란 대중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 경매 영향으로 춘란시장에서 인기품종은 거래가격이 전년보다 30~40% 이상 올랐으며 주부와 직장인을 중심으로 난테크가 일어나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종걸 aT 미래성장본부 이사는 "한국춘란의 연간 거래규모가 약 2500억원, 춘란 재배농가가 50만명에 이르는 등 경매로 인해 일부 품종은 시장구매가 어려울 정도로 희소성이 높아졌다"며 "한국춘란 심화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춘란 대중화와 산업화에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서울 양재동 aT 화훼공판장에서 열린 춘란경매에서 중도매인들이 대형스크린을 통해 난을 지켜보며 응찰하고 있다. (aT 제공)

내달부터 농업 난방기 면세경유 지원 중단

오는 7월부터 농업용 난방기에 대한 면세경유 공급이 중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인에게 공급했던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경유를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면세경유 부정유통 방지와 이미 등유로 전환한 농업경영체와의 형평성, 유종별 고유사용목적 등을 고려해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경유의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농식품부는 난방용 등유가 경유에 비해 열효율이 다소 떨어지고 시기에 따라 가격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면세유 가격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또한 농업용 난방기가 아닌 트랙터 및 콤팩트 등의 농기계에는 면세경유·휘발유·등유·LPG·윤활유를 계속 공급할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일보 작은만남 큰기쁨! 원인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블르메플라워샵 동구 공동 67번지 (예술의거리 중앙초교담장앞) 경조화환 등·서양화 꽃바구니 꽃다발 대표 임미랑 ☎062)653-3676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명화식당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062)224-7687, 010-2611-7687	가매초밥 동구 광산동 광주은행 남부지점 옆 초밥도시락, 남도바다요리전문점 오픈기념 할인행사! ☎062)232-6677~8	서울표구점 북구 중흥동 269-14 평화맨션 버스승강장 건너편 동양화 매대, 각종표구전문 ☎010-3633-2790, 267-7979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대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광주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동·서양화 매대 및 무료감정 고급표구 제작판매 대표 박종환 ☎062)232-4784	정성가득치과 북구 두암동 무등도서관 사거리 신원은행 건물6층 임플란트 보철, 치아교정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대표 김유화 ☎062)261-2288	미락식당 동구 개림동 서방사거리 금호e마트 정문옆 한방건강재첩, 꽃게무침, 갈치조림, 흥아조림 조기매운탕, 각종 생선구이 전문점 대표 김지수 ☎062)515-6464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광주천가꾸기협의회 동구 수기동 명성예식장 앞 여성 취미교실, 서양화, 수채화 무료 초보자 환영 ☎011-602-2883
오리백년두암직영점 북구 두암동 에덴병원 건너편 오리한방, 백숙, 오리생고기, 주물럭, 오리뎀닭, 오리 장어탕 ☎062)401-5253	토담 광산구 비아소방서와 중흥파크사이 병어조림, 갈치조림, 아구찜, 흥어찜 회무침 전문(계절별) 대표 김광수 ☎062)954-1333	초대화랑 동구 공동 54-2 (중임로 196번길 15-16) 예술의거리 중앙초교사거리에서 카를라센터쪽 30M 이전 확장개업 대표 임해택 ☎010-2681-3113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사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다나베음드 동구 남동 169-4 (충장로 171구민 민속촌 옆) 호남 최고 맛춤 정장 결혼예복전문 대표 김도경 ☎062)224-4262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광주선불폰·중고폰 북구 중흥동 376-7 동부교육청 건너편 신용불량, 통신연계, 무조건 개봉 가능 선불 1만 충전시 (2만원 추가 충전+유선카드 무료) ☎010-3070-8309 카톡 conta0206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똥이레 동구 대의동 10-1 바다장어, 찜꾸미, 봉장어, 샤브샤브, 돌관북음, 소금구이, 양념구이, 계절떡국 대표 윤영희 ☎062)234-7949	일등모바일 동구 금남로 2가7-4 (구)동구청 1층 핸드폰·악세서리 도매 전문점 ☎010-4655-9689	천수사백마장군 북구 중흥동 800-28 동부교육청 일방로 인생상당, 병점, 사주, 궁합, 부적 영으로 봅니다 대표 허길배 ☎010-2828-2008	놀부부대지개문화전당점 동구 광산동 56-1 (번지유업상실원) 부대찌개, 찜판구이 점장 최은진 ☎062)222-9290